

대학생의 성격특성 유형분석과 회복탄력성, 자기격려와의 관계 연구

임 채 영* · 엄 동 문**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성격 5요인을 활용하여 대학생의 성격특성에 따른 유형을 분류하고, 이러한 유형의 차이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밝혀보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자료수집은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경남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분석방법은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적용하여 성격특성에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차이비교를 위해 χ^2 과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성격특성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인구사회학적, 회복탄력성, 자기격려 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대학생의 성격특성에 대한 유형은 3개 유형(내향적 비개방형, 낙관적 적응형, 외향적 민감형)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세 유형과 변인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다양한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 유형별로 유의미한 변인을 검증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성격유형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대학생, 성격특성, 회복탄력성, 자기격려, 잠재프로파일분석

* 주저자 : 김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교신저자 : 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ksltv@hanmail.net

I. 서 론

청년기인 대학생들에게 경제적 독립과 직업 선택을 위한 준비는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이기에 이 시기의 대학생들은 사회제도적 틀에서 대학의 교육과정 및 개인적 경험을 통하여 발달과업을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이현주, 2014).

대학생들은 치열한 교육경쟁을 뚫고 대학입학과 함께 새로운 환경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교육환경의 변화, 새로운 대인관계, 독립적인 생활방식, 등록금에 치솟는 방값, 직업선택 및 진로 불안, 대학생활 적응 등과 같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김경화 · 이철인, 2018; 이현주, 2014). 최근 이러한 청년기 대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역대급 대란’이라 불릴 정도로 그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즉 대학생이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 마주해야 하는 풍경들이란 철용성 같은 취업의 벽과 청년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주택난 등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벽찬 탓에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은 물론이고 대인관계까지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다달이 최악의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는 청년 실업률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KOSIS, 2018)에 따르면, 2018년 3월 청년 실업률은 11.6%로 청년 실업자는 50만 7천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청년기 대학생에게 취업난과 같은 미래 삶에 대한 도전과 경쟁, 갈등과 불안, 불확실성 속에서 역기능적인 심리상태와 행동으로 개인의 삶이 피폐되거나 자살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김중운 · 박선영, 2018). 다시 말해,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과도한 스트레스 경험은 침울함, 우울, 무가치감 혹은 무력감과 같은 정서장애, 자신감 및 자존감의 감소, 학습 및 성적 저하, 심리적 안녕감, 대학생활 적응과 만족,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경화 · 이철인, 2018; 장순양, 2018; 이현주, 2014; 최승혜 · 이해영, 2014; 김나미 · 김신섭, 2013).

그러나 대학생들이 학업과 취업, 대학생활 적응 등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대학에서는 이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에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장학금 및 취업 상담 등이 주 업무로 대학생이 실제 힘들어 하고 있는 제반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한적이거나 전문화된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대학생의 일부만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김경화 · 이철인, 2018).

따라서 대학생들이 체감하고 있는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대학생 자신의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 및 행복을 위하여 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지닐 수 있도록, 고난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보다 성공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격특성과 회복탄력성, 자기격려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격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거나 성격이 발달되는 동안 어떤 환경에 노출되는지에 따라 인

간의 성격 형성이 좌우될 수 있으며, 타인과 구별되는 특징적인 사고, 감정, 행동양식으로 성격에 따라 보다 더 나은 선택을 통한 최선의 결과를 가져와서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Maria & Isabel, 2017; Pervin, 2003). 선행연구에서는 성격 5요인에 따라 의사결정능력, 정신건강, 스트레스 대처방식, 심리적 안녕감, 학업성취, 정보활용 유능감, 대인갈등 대처, 직무수행 등과 같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송하나 · 권나현, 2011; 안도희 · 윤지민, 2009; 한건환 · 장휘숙 · 안권순, 2005; 김도영 · 유태용, 2002; Maria & Isabel, 2017; Alessandri & Vecchione, 2012; Campbell-Sills, Cohan & Stein, 2006; Lee-Baggley, Preece & DeLongis, 2005; Paunonen & Ashton, 2001).

둘째, 회복탄력성은 개인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에게 처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는 힘으로 내면의 심리적 근육을 단련시켜주며,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다시 회복하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하기 때문이다(김주환, 2011; 신우열 · 김민규 · 김주환, 2009; Maria & Isabel, 2017; Shi, Liu, Wang & Wang, 2015; Reivich & Shatte, 2003). 또한 개인이 자질한 일상사 속에서 겪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인생의 고민,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자연스럽게 이겨내는 긍정적 결과도 가져온다(김주환, 2011). 선행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이 불안, 학업소진, 스트레스, 자살, 정신건강, 학사경고, 대학생활 적응, 생활만족도, 진로결정 및 진로태도 성숙, 조직적응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중운 · 박선영, 2018; 장순양, 2018; 조영복 · 이나영, 2018; 이정숙, 2016; 김나미 · 김효원 · 박완성, 2014; 최승혜 · 이해영, 2014; Maria & Isabel, 2017; shi et al., 2015).

셋째, 자기격려는 요구되어지는 활동들에 대해 자신이 스스로 격려하여 시도해 보거나 지속시킬 의지에 대한 개인의 자기 내적 신념으로,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 자신감을 가져오게 하고, 실패에 대한 수용과 자기 자신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사회불안을 덜 경험하게 하기 때문이다(장혜순 · 이만제, 2017; 임경희, 2009; Bahlmann & Dinter, 2001). 특히 대학생들은 정서적 독립을 성취하고자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지지하는 힘, 즉 자기격려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이현주, 2014). 선행연구에서는 자기격려가 스트레스 감소, 심리적 안녕감, 정신건강,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유능성과 상관이 있으며, 실패상황에서 스트레스 대처와 불안, 취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 적응, 진로장애와 진로태도성숙 · 진로준비행동, 부정적 평가 두려움과 스피치 불안감을 조절 및 매개하였다(장혜순 · 이만제, 2017; 허지애 · 김정문, 2017; 이현주, 2014; 임경희, 2009; 기채영, 2008; 유미리, 2008; 노안영 · 정민, 2007).

기존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같이 성격 5요인을 활용하여 대학생의 성격특성에 따른 유형을 분류했으나 그 유형 차이에 대한 예측요인, 즉 긍정적 보호요인으로 회복탄력성과 자기격려에 대한 연구가 거의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 스스로의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삶에 대한 행복과 만족, 안녕을 위해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역경 · 고난에 부딪히고 직면하여 성공적으로 대처 및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 5요인을 활용하여 대학생의 성격특성에 따른 유형을 분류하고, 이러한 유

형의 차이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밝혀보려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성격특성 유형 차이에 대한 예측요인, 즉 긍정적 보호요인으로 회복탄력성과 자기격려를 규명하여 보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격 5요인 모형을 이용하여 대학생들의 성격특성에 따른 유형과 그 유형의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대학생들의 성격특성 유형에 독립변인(인구사회학적, 회복탄력성, 자기격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대학생의 성격 5요인

성격에 관한 이론은 특성이론과 단계이론으로 구분된다. 특성이론은 성격이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공통적인 틀로서, 그 성격 특성이 어떤 요인이며,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단계이론은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달하여 개인이 생활하는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성격에 관한 대표적인 특성이론은 성격 5요인 모형(Big 5 Factor model of personality)으로, 인간의 성격이 공통적으로 5요인으로 구성되며 개인의 차이에 따라 사고에서부터 행동 양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Pervin, 2003). 이러한 성격 5요인은 각 요인이 하나의 범주에 유사한 특성을 포괄함으로써 어떻게 명명하느냐에 대한 많은 여러 학자들의 담론이 있어 왔는데, 공통적으로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 신경증으로 분류하여 성격의 개인적 특성을 설명하여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이론으로 보고하고 있다(Rottinghaus & Hauser, 2013; McCrae & Costa, 2005).

성격 5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외향성(Extraversion)은 사교성, 적극성, 솔직성, 활동성 등의 개념으로 사회적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교제나 상호작용 및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정도나 교환하는 정도를 일컫는다.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자신감과 에너지, 열정이 넘치며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이를 나누고자 한다. 즉,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의 교제나 상호작용을 선호하는 반면 외향성이 낮은 사람 즉, 내향적인 사람은 수줍음을 타고 소극적이다. 즉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긍정적 정서와 대인관계와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arver & Scheier, 2008; Rolland, 2002).

둘째, 친화성(Agreeableness)은 협조, 신뢰, 화평, 포용, 양보 등의 개념으로 다른 사람과 조화롭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정중하고 예의가 바르며, 협조적이고 양보심과 인내심이 많으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배려를 잘 해주는 등 이타적인

반면, 친화성이 낮은 사람은 적대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며, 질투심이 많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러므로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업무 자체 보다는 배려를 잘하여 대인관계가 좋으며, 사람을 상대하는 일에서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다(박일경 · 이상민 · 최보영 · Yuanying Jin · 이자영, 2010; Carver & Scheier, 2008).

셋째, 성실성(Conscientiousness)은 사회적 규범, 원칙을 기꺼이 스스로 지키려는 정도를 의미한다.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계획성이 있고, 논리적으로 진지하고 철저하여 일이 힘들어져도 결정된 것을 추진하는 힘이 강하며, 성취 지향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며 신뢰감을 주는 특성을 지닌다. 성실성이 낮은 사람은 산만하고 부주의하며, 일관성과 책임감이 없다. 그러므로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규칙과 규범을 스스로 잘 지키고 어떤 행동을 행함에 있어 신중하게 끈기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며(박일경 외, 2010; Carver & Scheier, 2008), 이는 학업과 직업 수행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John, Naumann & Soto, 2008).

넷째, 개방성(Openness)은 자신과 외부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적 자극, 창조성, 새로운 가치와 혁신, 변화, 다양성을 좋아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변화와 다양성을 좋아하고 새로운 경험을 성장의 기회로 여기는 반면, 개방성이 낮은 사람은 보수적으로 기존의 익숙한 환경에 대한 변화를 거부하는 경향이 높다(John, Naumann, & Soto, 2008). 즉,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교양과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적이며, 새로운 것에 대해 개방적이며, 지적 호기심이 강하다(Carver & Scheier, 2008).

마지막으로, 신경증(Neuroticism)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다양한 환경에 대한 정서적 안정성, 긴장 정도, 환경에 대한 민감성 등을 의미한다(Reed, Bruch & Haase, 2004). 신경증이 낮다는 것은 정서적 안정성이 높고 환경에 대해 위협적이지 않다고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 신경증이 높은 사람일수록 걱정이 많고 긴장, 불안, 우울하며, 변덕이 심하고 까다로우며, 의기소침하고 흥분을 잘 하며 화를 잘 낸다. 또한 신경증이 높으면 생산성이 낮아지고 주어진 일에 불만이 많으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고통에 더 취약하다(박일경 외, 2010). 즉 신경증이 높은 사람은 만성적으로 부정적인 감정들과 다양한 정신병리 현상을 경험하기 쉬워(McCrae & Costa, 2005),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쉽게 좌절할 수 있다(안도희 · 윤지민, 2009; Carver & Scheier, 2008; Rolland, 2002).

그러므로 성격 5요인은, 즉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 신경증은 높고 낮음에 대해 서로 다르므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하기 때문에 개인적 성격 특성 차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성격 5요인은 개인의 성격에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대학생의 성격에 따른 사고와 행동의 차이를 발견하여 더 나은 선택과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도록 돕기 위한 연구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2. 회복탄력성

자신에게 처한 역경을 맞닥뜨려 극복하려는 개인이 보호요인의 긍정적 작용으로 인하여 부정적 결과를 감소시키고,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적응을 잘 이루어내며 정신적으로도 성장하는 능력을 ‘resilience’라고 한다(정은주, 2017; 김주환, 2011; Masten, 2001; Luther, Cicchetti & Becker, 2000). 국내에서는 ‘resilience’를 탄력성(김계정, 2015; 주소영·이양희, 2011; 홍은숙, 2006), 회복력(신혜원·이지영, 2008), 극복력(백경원, 2006), 적응유연성(안도희·김지아, 2007), 자아탄력성(한현아·도현심, 2008), 심리적 건강성(위종희, 2012), 회복탄력성(정은주, 2017; 이신숙, 2013; 김주환, 2011, 신우열 외, 2009)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하여 사용해 왔다.

이에 김주환(2011)은 Reivich와 Shatte(2002)의 56문항의 회복탄력성지수와 회복탄력성 관련 연구에서 수백 개 문항 중 80개 문항을 선정하여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60세 이상 성인에 이르기까지 2000명 이상의 표본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조사와 엄밀한 통계분석을 통해 53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한국형 회복탄력성지수(KRQ-53)를 2009년에 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resilience’를 어려운 상태에서 적응적 상태로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인 ‘회복’과 정신적 저항력의 향상 즉, 역경을 딛고 되튀어 오르는 성장을 뜻하는 개념인 ‘탄력성’을 합쳐 ‘회복탄력성’으로 명명하였다(신우열 외, 2009). 회복탄력성은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고 그 환경을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인간의 총체적인 능력이다. 즉 회복탄력성의 핵심은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한다(김주환, 2011).

회복탄력성의 구성요인은 개인의 내·외적 요인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의 내적 요인은 기질, 인지능력, 성격적 특성, 대인관계 등으로, 외적 요인은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학교생활 등으로 연구자에 따라 그리고 접근방식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이해리·조한익, 2005). 그러나 김주환(2011)은 2009년에 한국형 회복탄력성지수(KRQ-53)를 개발하면서 회복탄력성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을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으로 제시하였다.

자기조절능력이란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이다. 즉, 자기조절능력은 역경이나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고 긍정적 감정과 건강한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역할(감정조절력), 기분에 휩쓸리는 충동적 반응을 억제하고 자율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보다 나은 모습과 성장을 위해 오히려 고통의 과정을 즐거움으로 승화시키고자 노력하여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충동통제력),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긍정적이고 객관적이며 정확하게 문제와 원인을 파악해서 대처방안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원인분석력)이다.

대인관계능력이란 인간관계를 진지하게 맺고 오래도록 유지하는 능력(소통능력)이면서, 다른 사람의 심리나 감정 상태를 잘 읽어낼 수 있는 능력(공감능력)과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자아확장력)이다. 대인관계능력의 핵심은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으로, 이러한 능력을 키워야 사회적 연결성(social connectedness)을 내면화하게 되어 강한 회복탄력성을 지닐 수 있다.

긍정성은 자기 자신의 강점과 장점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자아낙관성)이자, 행복의 기본 수준으로 보는 삶에 대한 만족도(삶의 만족도)이며, 삶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 감사하는 태도(감사하기)를 의미한다. 스스로의 실수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들은 회복탄력성이 높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보다 더 과감하고 도전적이어서 늘 새로움을 추구하며, 자신의 실수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회복탄력성이 높은 긍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다(김주환, 2011).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을 어떤 어려움과 마주하더라도 변화하는 상황에 알맞고 유연하게 대처하여 잘 적응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서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3. 자기격려

개인이 고난과 역경에 마주하여 이겨낼 수 있는 긍정적 보호요인으로 자기격려에 대한 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격려가 아니라 왜 자기격려에 초점이 맞추어지는가에 대한 이유(노안영 · 정민, 2007)로는 격려해 줄 사람들을 주위에서 찾는 것부터가 쉽지 않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격려는 일시적이거나 지속되지 못하고 변화할 수 있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타인의 격려가 철회될 수 있는 점과 타인의 격려에 의존하게 되는 부작용의 두려움과 불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위의 친한 사람들이 격려를 해주어도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없다면 타인으로부터 받는 격려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받는 격려 보다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일깨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내면의 힘인 자기격려가 필요하다(이현주, 2014).

Adler는 격려를 책임감과 용기를 일깨워서 자기 자신의 삶의 문제에 직면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에너지 원천(Sweeney, 1998, 노안영 외 역, 2005)이자, 개인의 인지적 도식인 틀에 긍정적인 기대를 주입하면 긍정적으로 고취되어 인지, 정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Dinkmeyer & Losoncy, 1996). Adler 또한 타인격려보다는 자기격려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격려는 자신의 가치와 강점에 초점을 맞추고 스스로 용기를 불러일으켜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 자신과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개인의 신념을 합리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킨다(이현주, 2014; 노안영 · 정민, 2007).

Bahlmann와 Dinter(2001)는 성인대상 자기격려 훈련의 결과로 자기 가치감, 자신감,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 긍정적 정서가 향상되고, 불안, 우울, 강박이 감소함을 보고하였고, 허지애와 김

정문(2017)은 자기격려가 증가하면 지각된 스트레스가 낮아져 심리적 안녕감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자기격려는 자기 자신의 심리적 안녕감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보호요인이다. 자기격려의 구성요인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Adler 이론에 근거한 자기격려 척도를 노안영과 정민(2007)이 개발하였는데, 자기격려를 인지, 정서, 행동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즉, 자기격려의 세 가지 구성요인은 각각 인지적으로 자기를 격려시키는 정도, 정서적으로 자기를 격려시키는 정도, 행동적으로 자기를 격려시키는 정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격려를, 스스로를 격려하여 용기를 주고 자기 확신과 자신감을 강화시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서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4. 성격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회복탄력성, 자기격려, 인구학적 특성)

성격 특성과 회복탄력성에 관한 연구로는, 일 연구(Campbell-Sills, Cohan and Stein, 2006)에서 회복탄력성이 신경증과는 부적 관계를,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과는 정적인 관계를, 친화성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aria와 Isabel(2017)의 연구는 479명의 사회복지 대학생들과 사회복지사의 성격 5요인과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사회복지 대학생들은 재학기간에 따라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 친화성이 증진된 반면 신경증은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성격 5요인과 회복탄력성(자기수용, 개인능력, 사회적 지지)과의 관계는 회복탄력성이 신경증과는 부적 관계,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 친화성과는 정적 관계였다. 즉, 외향성은 회복탄력성(자기수용, 개인능력, 사회적 지지)에, 성실성, 개방성은 회복탄력성 중 자기수용, 개인능력에, 외향성과 친화성은 회복탄력성 중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낮은 신경증은 회복탄력성 중 자기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이한우와 김정은(2017)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성격 5요인에 따른 성격 특성 잠재유형은 신경증을 중심으로 하여 신경증 내향 중심 집단과 신경증 외향 중심 집단, 낮은 신경증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성격 특성 유형과 회복탄력성과의 관계에서 낮은 신경증 집단을 기준으로 신경증 외향 중심 집단과 신경증 내향 중심 집단으로 비교한 결과는, 회복탄력성에서 자기조절능력(감정조절력), 긍정성(자아낙관성)이 높을수록 신경증 외향 중심 집단 보다 낮은 신경증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자기조절력(감정조절력), 대인관계(소통능력), 긍정성(자아낙관성, 감사하기)이 높을수록 신경증 내향 중심 집단 보다 낮은 신경증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경증 외향 중심 집단을 기준으로 대인관계(소통능력, 공감능력), 긍정성(자아낙관성, 감사하기)이 높을수록 신경증 내향 중심 집단 보다 신경증 외향 중심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hi 외(2015)는 중국 의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성격 5요인과 불안감 간의 관계에 대한 회복탄력

성의 매개효과를 연구하였다. 먼저 성격 5요인과 불안감 간의 회귀분석 결과, 친화성, 개방성, 성실성이 높은 의과 대학생은 불안감이 낮은 반면, 신경증이 높은 의과 대학생은 불안감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성격 5요인과 회복탄력성이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은 신경증과 외향성이 높은 의과 대학생은 불안감이 높았고, 친화성이 높은 의과 대학생은 불안감이 낮았다. 또한 회복탄력성이 높은 의과 대학생은 불안감이 낮게 나타났다. 신경증, 외향성이 높거나 친화성이 낮은 의과 대학생은 불안감이 높았는데, 이를 회복탄력성이 매개하여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내 보였다. 이 과정에서 성격 5요인과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는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 외향성이 높은 의과 대학생일수록 회복탄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 5요인과 자기격려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다만, 이현주(2014)는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요인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조절효과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취업스트레스 요인(성격, 가족환경, 학업, 학교환경, 취업불안) 중 성격과 자기격려(인지격려, 행동격려, 정서격려) 간에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격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격려(인지, 행동, 정서)의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성격 5요인과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형제순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장은지와 최은실(2017)의 연구에서 성별과 성격 5요인과의 관계는 친화성을 제외한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 신경증과 차이가 있었다. 즉, 여성은 남성 보다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더 높았고, 남성은 여성 보다 신경증이 더 높았다. 안창규와 채준호(1997)는 중학생인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신경증과 개방성이 낮고, 고등학생 또한 외향성을 제외한 다른 요인에서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은 차츰 낮아지는 반면, 친화성과 성실성은 높아졌다. 이한우와 김정은(2017)의 연구에서는 성격 5요인에 관한 특성 유형과 성별, 연령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성격 5요인은 출생순위(형제순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먼저, 출생순위가 빠를수록, 즉 첫째일수록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Healey & Ellis, 2007; Sulloway, 2001), 개방성이 강하고(안도희 · 윤지민, 2009; Michalski & Shackelford, 2002), 신경증이 높았다(Tamanna, 2017; Sulloway, 2001). 반면에 Cole(2013)는 중간에 속하는 개인이 첫째와 막내 보다 신경증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후순위 출생자일수록 반항적이며(Healey & Ellis, 2007), 친화성이 높고(Michalski & Shackelford, 2002), 개방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Healey & Ellis, 2007; Sulloway, 2001)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출생순위가 중간에 속하는 개인이 첫째 보다 더 충동적이고, 후순위로 갈수록 이타적인 성향을 보이며 막내가 더 온정적이고 성실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aroglou & Fiasse, 2003). 이처럼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다르므로, 출생순위와 성격 5요인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강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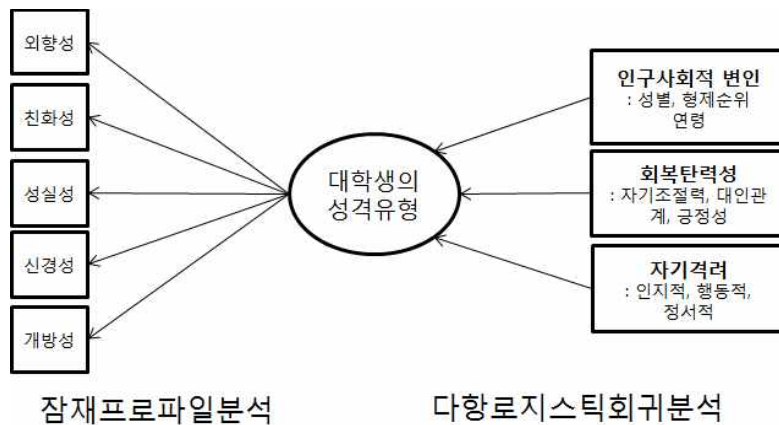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격 5요인에 관한 특성유형과 회복탄력성, 자기격려, 인구사회학적 변인(성별, 연령, 출생순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관련성을 밝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성격 5요인 모형을 이용하여 대학생들의 성격특성에 따른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선정한 특성변인(인구사회학적 변인, 회복탄력성 변인, 자기격려 변인)에 따라 대학생의 성격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2. 분석자료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경남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의 대학생 759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설문지 조사기간은 2015년 6월 10일 ~ 2015년 8월 20일까지 2개월에 걸쳐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자들이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진행절차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사생활보호와 관련된 자료사용 및 보호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총 800부를 배부하였으며, 전국 각 대학의 전임교원이 설문지를 수거하여 전달해 주었다. 분석을 위해 759부가 사용되었다.

1) 성격유형지표

대학생들의 성격유형지표는 Goldberg(1999)의 IPIP(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를 유태용, 이기범과 Ashton(2004)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이영란(2006)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IPIP는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성격 5요인의 측정도구(Rottinghaus & Hauser, 2013)이며,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 개방성 각각 10문항인 총 50문항의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으로 묶이지 않는 부적절한 문항을 제외하고, 외향성 8문항, 친화성 8문항, 성실성 6문항, 신경증 5문항, 개방성 6문항을 평균하여 성격유형지표로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성격 요인의 특징이 두드러짐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의 α)는 외향성 0.855, 친화성 0.784, 성실성 0.807, 신경증 0.669, 개방성 0.754이었다.

2) 특성변인

대학생의 성격특성 유형을 분석한 이후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성변인을 적용하였다. 특성변인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인 성별(여=0), 형제순위, 연령을 사용하였다. 회복탄력성 변인은 Reivich와 Shatte(2002)의 회복탄력성지수검사(RQT, Resilience Quotient Test)를 김주환(2011)이 2009년에 한국어로 개발한 회복탄력성지수(KRQ-53)를 사용하였다. KRQ-53은 자기조절능력 18문항, 대인관계능력 18문항, 긍정성 17문항의 총 53문항의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으로 묶이지 않는 부적절한 문항을 제외하고, 자기조절능력 13문항, 대인관계능력 14문항, 긍정성 16문항을 각각 평균하여 회복탄력성 변인으로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변인의 특징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의 α)는 자기조절능력 0.714, 대인관계능력 0.823,

〈표 1〉 특성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특성	구분	명		%		특성	구분	명		%	
			명	%	명	%			명	%		
인구 사회학적 변인	성별	남	389	51.3	형제 순위	첫째	406	53.5	연령	최소=18, 최대=30, M=21.15, sd=2.150		
		여	370	48.7		둘째	298	39.3				
				셋째	48	6.3						
				넷째	4	0.5						
회복탄력성	자기조절력	최소=1.92, 최대=4.77. M=3.32, sd=0.437										
	대인관계	최소=1.86, 최대=5.00. M=3.73, sd=0.476										
	긍정성	최소=1.75, 최대=5.00. M=3.61, sd=0.511										
자기격려	인지적	최소=1.00, 최대=5.00. M=3.79, sd=0.626										
	행동적	최소=1.29, 최대=5.00. M=3.56, sd=0.574										
	정서적	최소=1.44, 최대=5.00. M=3.67, sd=0.606										

긍정성 0.859이었다.

자기격려 변인은 노안영과 정민(2007)이 Adler 이론에 근거하여 개발한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영역의 각각 10문항인 총 30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격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으로 묶이지 않는 부적절한 문항을 제외하고, 인지적 6문항, 행동적 7문항, 정서적 9문항을 각각 평균하여 자기격려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신뢰도 계수(Cronbach의 α)는 인지적 0.872, 행동적 0.822, 정서적 0.886이었다. 특성변인에 대한 기술적 통계는 <표 1>과 같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성격 5요인 모형에 대한 성격특성을 유형화하고, 프로파일에 나타난 유형별 특성을 검증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분석프로그램은 Mplus 5.21과 SPSS 20.0을 활용하였다. 먼저,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대학생들의 성격특성을 유형을 탐색하기 위하여 성격 5요인 지표를 모형에 투입하여 잠재프로파일(LPA: 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프로파일을 탐색한 후에는 대학생의 성격특성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은 잠재계층의 수를 찾아내고 잠재계층을 결정짓는 것으로 이러한 방법은 각각의 독립변수의 효과검증이 가능하며,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염동문·백종규, 2018; Iwamoto, Corbin & Fromme, 2010; Jung & Wickrama, 2008)에서 추천하는 3가지 준거(criteria)를 사용하였다. 첫째, 정보적합도지수(information index)를 적용하였으며, 정보적합도지수는 값이 작을수록 적합도가 좋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와 SSABIC(Sample- Size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을 사용하여 잠재계층 수를 확인하였다.

둘째, k집단모형(대립가설)과 k-1집단모형(영가설) 간의 로그최대우도 차이에 대한 분포추정으로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는 LMR(Lo-Mendell-Rubin)과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를 적용하였다(McLachlan & Peel, 2000). LMR과 BLRT는 대립가설의 지지여부(k-1개 모델의 기각여부)를 결정하는 p값을 제공하게 되며, $p < 0.05$ 일 때, 대립가설을 지지하게 된다(Jung & Wickrama, 2008).

셋째, 도출된 잠재프로파일에 대한 실질적 유용성 평가로 표본대비 계층의 최소비율을 적용하였다. 최소비율은 Jung과 Wickrama(2008)는 모든 층이 표본 수의 최소 5% 이상이면 계층별 비교가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모든 계층의 분포율이 5% 이상인 기준을 적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대학생의 성격특성 유형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1) 잠재프로파일 모형 결정

대학생들의 성격특성에 대한 프로파일 유형을 결정하기 위해 잠재계층의 수를 1개에서 5개까지 증가시키면서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3가지 준거기준에 의한 5가지 적합도 지수와 잠재계층 분류율이 도출되었다.

<표 2> 잠재프로파일분석 모형적합도

모형	AIC	BIC	SSABIC	LMR	BLRT	잠재계층 분류율 %				
						1	2	3	4	5
1-class	6875.779	6922.099	6890.345	na	na	100				
2-class	6539.969	6614.081	6563.274	0.0000	0.0000	57.6	42.4			
3-class	6468.362	6570.266	6500.406	0.0004	0.0000	55.5	10.8	33.7		
4-class	6444.217	6573.913	6485.001	0.1252	0.0000	42.3	34.4	15.4	7.9	
5-class	6433.462	6590.950	6482.986	0.0943	0.0128	0.5	12.8	7.9	44.3	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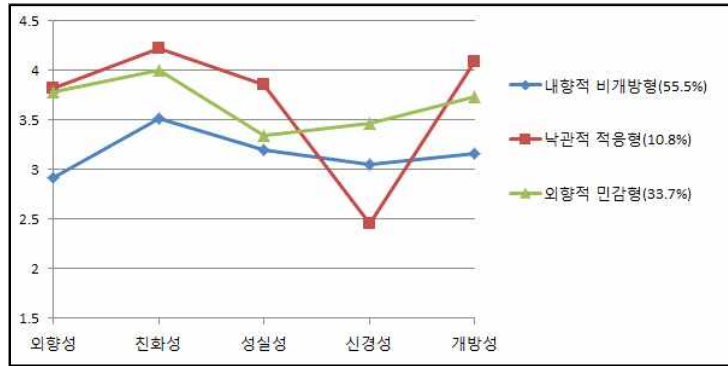
n=759 / na = not applicable.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함에 있어 4계층과 5계층은 LMR에서 대립가설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p > 0.05$). 또한 5계층은 표본대비 계층의 최소비율에서 5%미만이 나타나 잠재계층의 수 결정 모형에서 탈락되었다. 그러므로 3계층이 1계층과 2계층보다 AIC, BIC와 SSABIC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LMR과 BLRT에서 대립가설이 채택되었고, 잠재계층 분류율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2) 잠재프로파일 집단유형의 의미

성격 5요인에 의해 확인된 대학생의 성격특성 잠재프로파일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도출된 대학생들의 성격특성 프로파일의 각 하위유형의 특성을 관찰하여 1유형은 ‘내향적 비개방형’, 2유형은 ‘낙관적 적응형’, 3유형은 ‘외향적 민감형’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2]에서 유형1은 신경증은 중간정도이지만,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이 상대적으로 제일 낮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타 유형에 비해 낮은 외향성과 개방성이 특징이기 때문에 ‘내향적 비개방형(55.5%)’으로 명명하였다. 세 유형 가운데 제일 많은 대학생 비율을 나타내고



(그림 2) 대학생들의 성격특성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유형

있다. 유형 2는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이 타 유형에 비해 제일 높은 수준이며, 신경증이 제일 낮게 나타나 ‘낙관적 적응형(10.8%)’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에 속하는 대학생의 비율이 가장 적었다. 유형 3은 외향성과 친화성, 개방성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신경증이 상대적으로 제일 높게 나타나 ‘외향적 민감형(33.7%)’로 명명하였다.

결정된 대학생의 성격특성에 대한 프로파일의 5가지 지표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그림 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성격특성 지표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3유형인 ‘내향적 비개방형’과 ‘낙관적 적응형’, ‘외향적 민감형’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1$).

<표 3> 대학생의 성격특성 요인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유형 간의 차이 분석

지표	집단 내향적비개방형 (n=421) ^a	낙관적 적응형 (n=82) ^b	외향적 민감형 (n=256) ^c	전체 (n=759)	F
외향성	2.89(0.45)	3.86(0.58)	3.83(0.46)	3.31(0.67)	379.65 ^{***} a < c, b
친화성	3.51(0.43)	4.25(0.42)	4.01(0.38)	3.76(0.50)	177.98 ^{***} a < c < b
성실성	3.21(0.58)	3.89(0.66)	3.33(0.69)	3.33(0.66)	40.16 ^{***} a, c < b
신경증	3.04(0.48)	2.30(0.40)	3.51(0.45)	3.12(0.58)	227.56 ^{***} b < a < c
개방성	3.14(0.47)	4.13(0.43)	3.77(0.46)	3.46(0.59)	243.74 ^{***} a < c < b

*** $p < .001$, a, b, c: Scheff의 사후검증 결과, 단위 : 평균(표준편차)

3) 성격특성 프로파일 유형의 특성

대학생의 성격특성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결정된 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회복탄력성, 자기격려 변인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대학생의 성격특성 유형별 차이 분석 (단위: 명, %)

변인	유형	내향적 비개방형 ^a	낙관적 적응형 ^b	외향적 민감형 ^c	χ^2 or F
		인구	여	196(46.6)	
성별	남	225(53.4)	51(62.2)	113(44.1)	
사회학적	형제순위	1.48(0.61)	1.51(0.59)	1.61(0.70)	3.231*
변인	연령	21.13(2.18)	21.94(2.27)	20.93(2.00)	7.041** c, a < b
회복	자기조절력	3.22(0.42)	3.75(0.36)	3.36(0.40)	59.627*** a < c < b
	대인관계	3.50(0.43)	4.19(0.34)	3.97(0.35)	170.747*** a < c < b
	긍정성	3.41(0.47)	4.11(0.47)	3.77(0.41)	107.877*** a < c < b
자기격려	인지적	3.53(0.58)	4.38(0.52)	4.03(0.49)	121.926*** a < c < b
	행동적	3.29(0.53)	4.04(0.49)	3.84(0.41)	142.619*** a < c < b
	정서적	3.47(0.59)	4.21(0.48)	3.83(0.51)	77.383*** a < c < b

a, b, c: Scheff의 사후검증 결과, 단위: (명, %) or 평균(표준편차)

* $p < .05$; ** $p < .01$; *** $p < .001$

전반적으로 인구사회학적, 회복탄력성, 자기격려 변인들과 성격특성 유형이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먼저, 내향적 비개방형과 낙관적 적응형은 남성 대학생의 비율이 높았지만, 외향적 민감형은 여성 대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낙관적 적응형은 연령이 높고, 회복탄력성(자기조절력, 대인관계, 긍정성)과 자기격려(인지적, 행동적, 정서적)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내향적 비개방형은 연령이 낮고, 회복탄력성(자기조절력, 대인관계, 긍정성)과 자기격려(인지적, 행동적, 정서적)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외향적 민감형은 회복탄력성(자기조절력, 대인관계, 긍정성)과 자기격려(인지적, 행동적, 정서적)가 중간정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2. 대학생의 성격특성 유형별 예측변인 분석

대학생의 성격특성에 대한 잠재유형을 구분하고, 특성변인(인구사회학적, 회복탄력성, 자기격려)을 예측변인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어떤 변인이 대학생의 성격특성 잠재유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준거집단으로 낙관적 적응형, 내향적 비개방형을 각각 적용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결과, 낙관적 적응형을 준거집단으로 하고 내향적 비개방형과 외향적 민감형을 비교하면, 회복탄력성 변인에서 자기조절력($b = -1.334, p < .01$)과 대인관계($b = -3.076, p < .001$)가 낮을수록,

<표 5> 대학생의 성격특성 유형별 예측변인 분석

준거 집단	예측 변인	비교집단						
		내향적 비개방형			외향적 민감형			
		b	Wald	odd	b	Wald	odd	
낙관적 적응형	인구 사회학적 변인	성별(남)	0.036	0.012	1.037	-0.305	0.994	0.737
		형제순위	-0.027	0.012	0.973	0.317	1.945	1.373
		연령	-0.055	0.557	0.946	-0.148**	4.762	0.862
	회복 탄력성	자기조절력	-1.334**	9.171	0.263	-1.888***	21.392	0.151
		대인관계	-3.076***	30.589	0.046	-0.327	0.423	0.721
		긍정성	-0.354	0.429	0.702	-0.474	0.893	0.622
	자기격려	인지적	-2.379***	36.504	0.093	-0.729*	4.479	0.483
		행동적	-1.776***	18.717	0.169	0.225	0.375	1.253
		정서적	0.483	1.156	1.621	-0.310	0.591	0.733
내향적 비개방형	인구 사회학적 변인	성별(남)				-0.341	2.525	0.711
		형제순위				0.344*	4.676	1.411
		연령				-0.093	3.260	0.911
	회복 탄력성	자기조절력				-0.554*	3.921	0.575
		대인관계				2.749***	58.083	15.621
		긍정성				-0.120	0.131	0.887
	자기격려	인지적				1.650***	36.815	5.209
		행동적				2.001***	53.979	7.399
		정서적				-0.794**	7.231	0.452

* $p < .05$; ** $p < .01$; *** $p < .001$

자기격려 변인에서 인지적($b = -2.379, p < .001$)과 행동적($b = -1.776, p < .001$) 격려가 낮을수록 낙관적 적응형 보다는 내향적 비개방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변인에서 연령($b = -0.148, p < .01$)이 낮을수록, 회복탄력성 변인에서 자기조절력($b = -1.888, p < .001$)이 낮을수록, 자기격려 변인에서 인지적($b = -0.729, p < .05$) 격려가 낮을수록 낙관적 적응형 보다는 외향적 민감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자기조절력과 대인관계, 인지적 및 행동적 격려가 낮을수록 낙관적 적응형 보다는 내향적 비개방형에 속할 경향이 높으며, 연령이 낮고, 자기조절력과 인지적 격려가 낮을수록 낙관적 적응형 보다는 외향적 민감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내향적 비개방형을 준거집단으로 하고 외향적 민감형을 비교하면, 인구사회학적 변인에서 형제순위($b = 0.344, p < .05$)가 낮을수록, 회복탄력성 변인에서 자기조절력($b = -0.554, p < .05$)이 낮고 대인관계($b = 2.749, p < .001$)가 높을수록, 자기격려 변인에서 인지적($b = 1.650, p < .001$) 격려가 높고 정서적($b = -0.794, p < .01$) 격려가 낮을수록 내향적 비개방형보다는 외향적 민감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형제순위가 낮고(출생순위가 후순위일수록), 자기조절력과 정서적 격려가 낮을수록, 대인관계와 인지적 및 행동적 격려가 높을수록 내향적 비개방형보다는 외향적 민감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격 5요인을 활용하여 대학생들의 성격특성에 따른 유형을 분류하고, 이러한 유형의 차이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여 대학생들의 성격특성 유형의 차이에 대한 실증적 함의를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격 5요인에 의해 확인된 대학생들의 성격특성 잠재프로파일은 3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1유형인 ‘내향적 비개방형(55.5%)’은 신경증은 중간 정도이나,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이 상대적으로 제일 낮게 나타났는데, 특히 타 유형에 비해 외향성과 개방성이 낮은 집단이었다. 외향성이 낮은 사람, 즉 내향적인 사람은 조용하고 타인과의 교제나 상호작용이 소극적이고 수줍음을 쉽게 타는 경향이 높거나(Carver & Scheier, 2008; Rolland, 2002), 개방성이 낮은 사람은 전통적 권위에 순응하여 관습적이고 보수적이며 기존의 익숙한 환경에 대한 변화를 거부하는 경향이 높은 특성을 지닌다(John, Naumann, & Soto, 2008).

2유형인 ‘낙관적 적응형(10.8%)’은 외향성, 친화성, 개방성, 성실성이 타 유형에 비해 제일 높은 수준이며, 신경증이 제일 낮게 나타났다. 일 연구(Maria & Isabel, 2017)에서는 대학 재학기간이 늘어날수록 외향성, 친화성, 개방성, 성실성이 높아지고, 신경증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를 뒷받침한다. 특히, 신경증이 낮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다양한 환경에 대해 침착,

인내, 조용함 등 정서적 안정성의 정도가 높고, 위협적인 반응을 보이는 정도가 낮다(Reed et al., 2004). 즉 스트레스와 긴장 상태를 잘 극복하고 차분하게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특성이 있다(박일경 외, 2010).

반면에,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의 교제나 상호작용을 선호하며 긍정적 정서와 대인관계와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arver & Scheier, 2008; Rolland, 2002). 또한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이타적으로 대인관계가 좋고 배려를 잘 하며, 협력적이고 호의적이며, 사람을 상대하는 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박일경 외, 2010; Carver & Scheier, 2008).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교양과 상상력이 풍부하고 호기심이 많으며 창의적이고,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다(Carver & Scheier, 2008).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믿을 만하고 조심성이 있으며, 규칙을 스스로 잘 지키고, 끈기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여 학업 및 직업 수행을 잘 하는 것으로 보고된다(John, Naumann & Soto, 2008).

3유형인 ‘외향적 민감형(33.7%)’은 외향성과 친화성, 개방성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신경증이 상대적으로 제일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낙관적 적응형’과는 달리 ‘외향적 민감형’은 비교적 성실하면서도 더욱 외향적이고, 친화적이며, 개방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장 높은 신경증을 가진다. 신경증이 높은 사람은 대부분 만성적으로 불안, 우울, 분노, 걱정, 신경질, 긴장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과 다양한 정신병리 현상을 쉽게 경험하고 스트레스와 고통에 더 취약하여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잘 받고 좌절하기 쉬운 특징이 있다(안도희·윤지민, 2009; Carver & Scheier, 2008; McCrae & Costa, 2005; Rolland, 2002).

본 연구와는 달리 이한우와 김정은(2017)의 연구는, 대학생의 성격 5요인 특성을 신경증을 중심으로 낮은 신경증 집단과 신경 외향 중심 집단, 신경 내향 중심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성격 5요인이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 신경증으로 구성되어 개인 간의 차이를 구분 짓는데, 이러한 성격 특성을 신경증에만 초점을 맞추어 신경증이 낮거나 신경증 외향 및 내향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은 정신병리 현상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측면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격 5요인을 반영한 3유형 즉, ‘내향적 비개방형’과 ‘낙관적 적응형’, ‘외향적 민감형’으로 명명하였고, 이에 대학생의 성격 특성 유형에 따라 더 나은 선택과 결정을 통해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천적 개입이 필요하다하겠다.

둘째, 대학생의 성격특성 유형 차이에 대한 예측 변인(인구사회학적, 회복탄력성, 자기격려)을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확인하였다. 먼저, ‘낙관적 적응형’을 준거집단으로 하고 ‘내향적 비개방형’과 ‘외향적 민감형’을 비교한 결과, 전자는 회복탄력성(대인관계, 자기조절력)이, 자기격려(행동적 및 인지적 격려)가 낮을수록 ‘낙관적 적응형’ 보다는 ‘내향적 비개방형’에 속할 경향이 높으며, 후자는 연령이 낮고, 회복탄력성(자기조절력)과 자기격려(인지적 격려)가 낮을수록 ‘낙관적 적응형’ 보다는 ‘외향적 민감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환언하면, 전자의 경우 회복탄력성(대인관계, 자기조절력)이, 자기격려(행동적 및 인지적 격려)

가 낮을수록 신경증은 중간 정도이고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이 상대적으로 제일 낮은 상태로 특히 상대적으로 외향성이 낮은 즉, 내향적이고 개방성이 낮은 ‘내향적 비개방형’ 대학생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Shi(2015), Maria와 Isabel(2017)의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과 신경증을 제외한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이 정적인 영향 관계인 것으로, Campbell-Sills 외(2006)의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이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과 정적 관계를 나타내어 본 연구의 결과를 일부분 뒷받침한다.

후자의 경우 회복탄력성(대인관계, 자기조절력)이, 자기격려(행동적 및 인지적 격려)가 낮을수록 비교적 성실하고, 외향적이며, 친화적이고, 개방적인데도 불구하고 신경증이 상대적으로 높은 ‘외향적 민감형’ 대학생 집단에 속할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이한우와 김정은(2017)의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 중 자기조절력(감정조절력)과 긍정성(자아낙관성)이 높을수록 신경증 외향 중심 집단 보다 낮은 신경증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회복탄력성 중 자기조절력(감정조절력), 대인관계(소통능력), 긍정성(자아낙관성, 감사하기)이 높을수록 신경증 내향 중심 집단 보다 낮은 신경증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보인다.

그러므로 낙관적 적응형 보다 내향적이고 개방성이 낮은 ‘내향적 비개방형’ 대학생은 회복탄력성(대인관계와 자기조절력)과 자기격려(행동적 및 인지적 격려)가 낮기 때문에 역경이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부정적 감정도 잘 대처하여 대학생활 및 사회 적응을 잘 할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들이 더 많이 요구된다. 특히, 자기조절력과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켜 회복탄력성을 높인다면, 긍정성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행복과 함께 타인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주환, 2011).

또한 연령이 낮아질수록 외향성, 개방성, 그리고 신경증이 높아지는 장은지와 최은실(2017)의 연구와 본 연구는 외향적 민감형일 경우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비교적 성실하고, 외향적, 친화적, 개방적인데도 불구하고 신경증이 높은 ‘외향적 민감형’ 대학생은 연령이 낮을수록 회복탄력성(자기조절력)과 자기격려(인지적 격려)를 높일 수 있는 대책 강구가 필히 필요하다.

다음으로, 내향적 비개방형을 준거집단으로 하고 외향적 민감형을 비교한 결과, 형제순위가 낮고 다시 말해, 출생순위가 후순위이고, 회복탄력성 중 자기조절력이 낮고 대인관계가 높을수록, 자기격려 중 인지적 격려는 높은데 반해 정서적 격려가 낮을수록 내향적 비개방형보다는 외향적 민감형 대학생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출생순위가 후순위일수록 친화성이 높고(Michalski & Shackelford, 2002), 개방성이 상대적으로 강하여(Healey & Ellis, 2007) 외향적 민감형에 속할 경향이 높다.

회복탄력성 중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이한우와 김정은(2017)의 연구는 신경증 외향 중심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신경증 내향 중심 집단과 비교한 결과, 대인관계(소통능력, 공감능력)와 긍정성(자아낙관성, 감사하기)이 높을수록 신경증 외향 중심 집단에 속할 경향이 높았는데, 본 연구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는 내향적 비개방형에 비해 외향적 민감형 대학생의 경우, 출

생순위가 후순위이고, 에너지 방향을 자기 외부에서 내부로 돌려 대인관계는 줄이고 자기조절력을 높일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인지적 자기격려 보다 정서적 자기격려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연구적 측면에서 본 연구와 기존연구와의 차이점은 대학생의 성격 5요인 특성을 잠재프로파일을 통해 3개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회복탄력성과 자기격려가 성격 특성 유형별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보호 예측요인임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연령과 형제순위 즉, 출생순위도 성격 특성 유형별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격 특성 유형별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회복탄력성과 자기격려와 같은 긍정적인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개입의 필요성과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데 연구의 기여도가 크다 하겠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및 진로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나 소진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분석해 왔기 때문에 대학생의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긍정적 개입은 매우 중요하다(Maria & Isabel, 2017). 회복탄력성과 자기격려는 역경 및 고난 관리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으며(김주환, 2011; 이현주, 2014; Maria & Isabel, 2017), 매일 매일 직면해야 하는 스트레스 등의 상황을 다룰 때 대학생의 성격특성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측면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실천적 개입에 대한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대학생의 성격 5요인을 활용하여 성격 특성 유형별 차이에 따라 회복탄력성과 자기격려 프로그램을 차별화하여 개입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학생의 성격 특성 유형이 ‘내향적 적응형’인지, ‘내향적 비개방형’인지, ‘외향적 민감형’인지를 구분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은 대학생의 성격 특성 유형별로 회복탄력성과 자기격려 프로그램을 차별화한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형제순위 즉 출생순위가 후순위일수록 내향적 비개방형 보다 외향적 민감형 대학생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정서적 자기격려를 통해 에너지 방향을 자기 외부에서 내부로 돌려 자기조절력을 높일 수 있는 회복탄력성 및 자기격려 프로그램을 차별화하여 개입한다.

둘째, 대학생의 성격 특성 유형별 차이에 따라 회복탄력성과 자기격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회복탄력성 및 자기격려 프로그램은 각각 별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안영민·김원중, 2018; 김나미 외, 2014).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회복탄력성과 자기격려 프로그램을 동시에 개입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하나로 통합하여 대학생의 성격 특성 유형별로 회복탄력성과 자기격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특히, 회복탄력성에서는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능력에, 자기격려는 인지, 정서, 행동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겠다.

셋째, 대학생의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고려하여 성격 특성 유형별 차이에 따라 회복탄력성과 자기격려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학사경고 상황, 갓 들어온 신입생, 진로를 찾지 못

해 방황하거나 찾았다 해도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거나 준비를 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두려움과 불안 등의 감정적 소모, 데이트 폭력, 가족 및 친구와의 불화, 따돌림, 시험 준비,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등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이나 역경, 시련, 고난의 상황이 조금씩 다르고 이에 대처하는 대학생의 성격 특성 유형도 차이가 있을 것이 분명하기에 성격특성 유형별 회복탄력성과 자기격려를 통합한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한다.

넷째, 대학생의 성격 특성 유형별 분류와 회복탄력성과 자기격려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강화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는 학생상담센터, 성희롱·성폭력 상담소, 장애학생지원센터, 취업·진로지원센터 등 독립기관으로 또는 통합기관으로 각 대학의 상황에 따라 전문 인력이 1명 혹은 전혀 없이 유사 자격 행정직원의 상담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도 존재한다. 따라서 사회복지 또는 상담 전문 인력의 강화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경남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의 대학생을 편의표집을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전문대학 대학생을 포함한 전체 대학생에게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기에, 추후 표집에서는 확률표집을 적용한 일반화의 가능성을 적용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실적 연구를 위해서 정부기관의 조사와 지원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변수의 선정과 검증이 이루어졌으나 제한적으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측정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통해 보다 폭넓게 변수의 선정(보호/위험요인, 배경요인)과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생의 성격 5요인 특성을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하여 유형화하여 예측요인을 검증한 바, 후속연구에서는 조절 및 매개변수의 검증이 필요하다. 넷째, 성격 특성의 발달을 촉진하는 대학 교육과 직장에서의 활동 및 행동의 개발 요인에 대해 확장시킨 분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 대학생과 사회복지사의 성격 5요인 특성과 회복탄력성, 자기격려, 인구사회학적 요인 등의 분석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기채영 (2008). 대학생의 자기위로, 자기격려, 자기수용과 정신건강의 관계.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1(4), 65-76.
- 김경화 · 이철인 (2018). 대학생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성격특성, 자기 관리, 진로태도를 중심으로. 융합정보논문지 8(2): 19-27.
- 김계정 (2015). 청소년의 위기요인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탄력성과 학교문화의 영향. 강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나미 · 김신섭 (2013). 대학생 생활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2): 1125-1144.
- 김나미 · 김효원 · 박완성 (2014). 학사경고 대학생을 위한 회복탄력성 프로그램과 동료 멘토링의 효과. 열린교육연구. 22(1): 391-412.
- 김도영 · 유태용 (2002). 성격의 5요인과 조직에서의 맥락수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산업 및 조직, 15(2), 1-24.
- 김중운 · 박선영 (2018).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과 우울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5), 561-582.
- 김주환 (2011). 회복탄력성: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유쾌한 비밀. 고양: 위즈덤하우스.
- 노안영 · 정 민 (2007). 자기격려-낙담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675-692.
- 박일경 · 이상민 · 최보영 · Yuanying Jin · 이자영 (2010). 5요인 성격특성과 학업소진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1): 81-93.
- 백경원 (2006). 만성질환을 가진 아동과 가족의 극복력. 아동간호학회, 12(2), 223-232.
- 송하나 · 권나현 (2011). 대학생의 성격 특성과 학업 성취와의 관계에서 정보활용 유능감의 매개 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18(3), 331-353.
- 신우열 · 최민아 · 김주환 (2009). 회복탄력성의 세 가지 요인이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6(3): 43-81.
- 신혜원 · 이자영 (2008). 암환아와 어머니의 회복력에 관한 상관관계연구. 중앙간호학회지, 8(1), 24-31.
- 안도희 · 김지하 (2007). 대학생의 적응유연성에 따른 집단별 특성. 교육심리학회, 21(1), 47-67.
- 안도희 · 윤지민 (2009). 출생 순위와 성격 5요인이 청소년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 연구, 23(3), 623-643.
- 안영민 · 김원중 (2018). 아들러(Adler) 개인심리학에 근거한 자기격려 셀프카운슬링 프로그램이

-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대인관계, 사회적 관심에 미치는 효과. 복지상담연구, 7(1): 279-304.
- 안창규 · 채준호 (1997). NEO-PI-R의 한국표준화를 위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9(1). 443-473.
- 엄동문 · 백종규 (2018). 이중문화특성의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11(1), 295-319.
- 위중희 (2012). 아동이 지각한 가족건강서,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구조관계분석.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미리 (2008). 실패상황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자기격려 수준에 따른 불안의 변화.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태용 · 이기범. Ashton, M. C. (2004). 한국판 HEXACO 성격검사의 구성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62-75.
- 이신숙 (2013).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이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란 (2006). 상담자의 소진(burnout)과 5요인 성격특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숙 (2016).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회복탄력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10): 253-260.
- 이해리 · 조한익 (2005).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개발. 한국청소년연구, 42(12), 161-206.
- 이현주 (2014).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요인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조절효과. 교육문제연구, 27(4): 1-25.
- 임경희 (2009). 남녀대학생의 진로장애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격려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2(3): 101-119.
- 장순양 (2018). 고학년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수산해양교육연구, 30(3), 1075-1088.
- 장은지 · 최은실 (2017). Big 5 성격요인에 따른 청소년 성격특성의 발달적 변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0): 307-321.
- 장해순 · 이만제 (2017). 대학생의 부정적 평가 두려움과 스피치 불안감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매개효과.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일반, 35(1), 63-83.
- 정은주 (2017). 청소년 회복탄력성 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초당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영복 · 이나영 (2018). 인지적 유연성, 목표지향성, 자기개념명확성이 조직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회복탄력성을 중심으로. 경영과 정보연구, 32(3), 221-245.
- 주소영 · 이양희 (2011). 청소년용 탄력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18(4), 103-139.
- 최승혜 · 이해영 (2014). 대학생의 불안, 취업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회

- 복탄력성의 조절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0): 619-627.
- 한건환 · 장휘숙 · 안권순 (2005). 일반적 가치와 성격특성이 청소년과 대학생 및 성인의 의사결정 능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2(2), 295-313.
- 한현아 · 도현심 (2008). 가정의 위험요인, 자아탄력성 및 또래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1), 87-101.
- 허지에 · 김정문 (2017). 자기격려와 지각된 스트레스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지지추구적 정서 조절양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스트레스연구, 25(1), 44-51.
- 홍은숙 (2006). 탄력성의 개념적 이해와 교육적 방안. 특수교육학연구, 41(2), 45-67.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별 총괄(<http://kosis.kr/search/search.do>). 2018/09/02.
- Alessandri, G., & Vecchione, M. (2012). The higher-order factors of the Big Five as predictors of job performa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3(6), 779-784.
- Bahlmann, R., & Dinter, L. (2001). Encouraging self-encouragement: an effect study of the encouraging-training Schoenaker concept. *The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57, 273-288.
- Campbell-Sills, L., S.L. Cohan and M.B. Stein (2006) 'Relationship of Resilience to Personality, Coping and Psychiatric Symptoms in Young Adul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 585 - 99.
- Carver, C. S., & Scheier, M. F. (2008). *perspectives on personality*. MA: pearson Education.
- Cole, M. E., (2013). *Birth Order: An examination of its relationship with the big five personality theory and trait emotional intelligence*, Thesis for doctorate of philosophy, University of London.
- Dinkmeyer, D. & Losoncy, L. (1996). *The skills of encouragement*. Delray Beach, FL: St. Luice Press.
- Goldberg, L. R. (1999). A-broad-bandwidth, public-domain, personality inventory measuring the lower-level factors several five-factor models. *Personality Psychology in Europe*, 7, 7-28.
- Healey, M. D., & Ellis, B. J. (2007). Birth order, conscientiousness, and openness to experience: Tests of the family-niche model of personality using a within-family methodology.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28(1), 55-59.
- Iwamoto, D. K., Corbin, W., & Fromme, K. (2010). Trajectory classes of heavy episodic drinking among Asian American college students. *Society for the Study of Addiction*, 105, 1912-1920.
- John, O. P., Naumann, L. P., & Soto, C. J. (2008). Paradigm shift to the integrative BigFive trait taxonomy: History, measurement, and conceptual issues. In O. P. John, R. W. Robins, & L. A. Pervin (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Guilford Press.
- Jung, T., & Wickrama, K. A. S.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 302-317.
- Lee-Baggley, D., Preece, M., & DeLongis, A. (2005). Coping with interpersonal stress: Role of Big Five

- traits. *Journal of personality*, 73(5), 1141-1180.
- Luther, Cicchetti, & Becker,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 543-562.
- Maria, de las Olas Palma-Garcia & Isabel, Hombrados-Mendieta (2017). Resilience and personality in social work students and social workers. *International Social Work*. 60(1), 19-31.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238.
- McCrae, R. R. & Costa, P. T. (2005). The NEO-PI-3: A More Readable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4(3), 261-270.
- McLachlan, G., & Peel, D. (2000). *Finite mixture models*. NY: Wiley.
- Michalski, R. L., & Shackelford, T. K. (2002). An attempted replication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birth order and persona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6(2), 182-188.
- Paunonen, S.V., & Ashton, M.C. (2001). Big Five predictors of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5(1), 78-90.
- Pervin, L. A. (2003). *The science of personality(2th ed)*.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Reed, M. B., Bruch, M. A., & Haase, R. F. (2004).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nd career explora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2(3), 223-238..
- Reivich, K.,& Shatte, A. (2002). *The resilience factor: Seven Essential skills for overcoming life's inevitable obstacles*. New York: Broadway Books.
- Rolland, J. (2002). *The cross-cultural generalizability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In R. R. McCrae, & J. Allik (Eds.),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cross Cultures*. NY: Kluwer Academic Plenum Publishers.
- Rottinghaus, P. J., & Hauser, P. M. (2013). Assessing additional constructs affecting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In S. D. Brown & R.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2nd ed., pp. 477 - 505). New York: Wiley.
- Saroglou, V., & Fiasse, L. (2003). Birth order, personality, and religion: A study among young adults from a three-sibling famil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1), 19-29.
- Shi, M., Liu, L., Wang, Z. Y., & Wang, L. (2015). The Mediating Role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ig Five Personality and Anxiety among Chinese Medical Students: A Cross-Sectional Study. *PLoS ONE* 10(3): e0119916.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119916>
- Sulloway, F. J. (2001). Birth order, sibling competition, and human behavior. In *Conceptual challenges in evolutionary psychology* (pp. 39-83). Springer, Dordrecht.

- Sweeney, T. J. (1998). *Adlerian counseling: A practitioner's approach*(4th ed.). Philadelphia, PA: Accelerated Development.
- 노안영 외 역(2005). *개인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Tamanna, G. (2017). Birth Order and Personalit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ian Psychology*, 5(1), 119-125.

논 문 접 수: 2018. 09. 10
수정(1심)접수일: 2018. 09. 29
수정(2심)접수일: 2018. 10. 16
게 재 승 인: 2018. 10. 20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Analysis of Personality Traits and Resilience, Self-encour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Lim, Chae Young
Gimhae College

Yeum, Dong Moon
Changshin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types of personality traits of university students by using the five personality traits, and also to reveal the factors that make it possible to predict the differences in the types. Data was collected from the four-year-course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Daejeon, Daegu, Gwangju, Busan, and Gyeongnam. Applying the latent profile analysis, the types of personality traits were classified, and the χ^2 and ANOVA were conducted for comparing the differences in each type. In order to verify the predicting factors(sociodemographic, resilience, self-encouragement variables) of the types of personality traits, th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In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e personality traits of university students were divided into three types(introvert closed-type, optimistic adaptive-type, extrovert sensitive-type). Second, in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ose three types and variable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diverse variables. And th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verified the significant variables in each type. Based on such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personality traits of university students, and also suggested the limitations and the direction of follow-up researches.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 personality traits, resilience, self-encouragement, latent profile analysis